

문 의	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	과 장 한덕원	042-481-8254
		사무관 김준일	042-481-5156
	특허청 기초재료화학심사과	과 장 손창호	042-481-5407
		사무관 박함용	042-481-8409
		2019년 12월 3일(화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특허청, 지자체·전문연구과 함께 첨단소재 기술 국산화 지원한다

-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'産·學·研·官 탄소소재 IP 협의회' 내년 초 출범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전북도청,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업 간담회를 12월 3일(화) 오후 2시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< '첨단소재 기술국산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' 개요 >

- 일시/장소 : 12.3(화) 14:00~16:00 / 한국탄소융합기술원(전북 전주 소재)
- 참 석 자 : 특허청 차장, 전라북도 정무부지사, 탄소융합기술원장 및 탄소소재 등 소·부·장 기업 관계자 등(약 40여명)
- 내 용 : ① 탄소소재의 기술자립화를 위한 특허 관점의 대응방안 등 논의
② 탄소소재 등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관계자 의견 수렴

-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 탄소소재 등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, 관련된 지역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·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.

- ‘탄소섬유’는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수소·전기차, 우주·항공,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첨단 소재이다. 최근에 그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, ‘탄소섬유’ 관련 국내·외 특허 출원은 모두 일본이 선도*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.

* 탄소섬유 관련 주요국(한·미·일·EU·중) 특허출원을 기준으로, ‘도레이, 미쓰비시, 테이진’ 등 일본 기업이 최다 출원인 1~3위에 해당 (‘19.10월 기준)

- 이에 특허청은 지난 8월 ‘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(단장: 특허청 차장)’을 발족하여, 탄소소재 등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대한 지재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.
- 이날 특허청은 ‘소재·부품·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강화방안(‘19.11.20.)’, 전북도청은 ‘전라북도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지원정책’,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‘탄소소재 기술 국산화 현황 및 비전’ 등 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한다.
- 또한,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특허청은 내년 초 ‘산·학·연·관 탄소소재 IP 협의회’를 출범하여 탄소소재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공유하고, 정부, 지자체, 대·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.

-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“탄소소재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이나, 그간 경쟁국가에 비해 특허 선점 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”고 하면서,

- “앞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이 첨단소재 분야 핵심·원천 기술을 개발하고,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